

< 모범의원 수상소감문 >

노벨상과 같은 모범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모범의원’으로 평가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한편 매우 송구스럽기조차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많은 상임위원장들로부터 270개 NGO로 구성된 8년 전통의 종합 모니터단인 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충실하고 실효성있는 의정활동·국정감사활동을 유도·담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망의 노벨상과 같이 꼭 받고 싶어한다는 귀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하신 ‘모범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막중한 책무이므로 만사제폐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국회부의장으로서 국감기간 중에 국회의장직을 대행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국감에는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각 지방법원과 지검에 대한 국감에도 참여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법원상 정립을 위한 사법정책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국감이 대다수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여·야가 함께 하는 정책국감으로서 자리잡은 진지한 분위기에 힘입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감사’의 진면목이 드러난 국감이었고, 제가 속한 법제사법위원회만 해도 성실하고 훌륭하게 국정감사에 임하신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수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모범의원상은 더욱 성실히 의정생활을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며, 끝으로 국감 NGO모니터단 김대인 상임공동단장외 17인의 공동단장님과 그 소속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일 국회부의장 李 龍 熙

7년 연속 국감우수상을 수상하며

그동안 많은 상을 받았지만 이번처럼 가슴이 설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이후 7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받고 싶었던 평가, 가장 받고 싶었던 상이 바로 NGO모니터단의 우수의원 평가였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수많은 평가가 내려집니다만 NGO모니터단이야말로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위한 평가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수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국민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년 연속 우수의원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6년 연속 상을 주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의 국감을 선보여야 한다’는 각오를 했고, 국감 과정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년 국정감사에서도 성실성은 변함없이, 내용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준비해야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수 평가’와 함께 푸짐한 상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NGO모니터단’입니다. 100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일일이 상임위 전체를 모니터하고, 질문내용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여러분의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NGO모니터단이 있었기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고, 올 국감을 통해 그 같은 바람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 자료 준비 하나, 심지어는 질의하는 자세하나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니터단의 눈과 귀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모니터단은 제 길을 잃고 방황하던 국정감사의 방향을 바로 잡고, 올바른 국정감사의 모습을 정립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니터단 구성원께 국민과 함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모니터단이 평가결과 발표하면서 던진 화두는 ‘형해화된 국회기능 회복’이었습니다. 모니터단의 바람처럼 ‘형태만 남고 실질적인 권한을 잃어버린 국회의 4대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국가 5부가 건전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